

이스라엘 진영에서 경험한 것

경험 #1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지 에이 스미스(1817~1875) 장로는 이스라엘 진영이 여행 중에 직면했던 몇 가지 상황을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선지자 조셉은 여정 내내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진영을 돌보고 감리하는 일 외에도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걸으면서 보냈다. 그의 발은 온통 물집으로 뒤덮였으며, 피가 나고 상처가 심했다. 무더운 여름철에 매일 40~64킬로미터를 걸었으니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는 여행을 하는 동안 단 한 마디도 불평하거나 투덜거리지 않았다. 반면에, 진영에 속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게 아픈 발가락, 물집, 긴 행군, 부족한 식량, 형편없는 빵, 상한 옥수수빵, 곰팡이가 낀 버터, 쓴 맛이 나는 꿀, 구더기가 낀 베이컨과 치즈 등에 대해 불평했다. . . . 우리는 시온 진영이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지 않고, 사려 깊지도 않았으며, 조심성도 없었고, 부주의하고 어리석거나 사악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을 몰랐다. 조셉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참을성 있게 우리를 대해 주고 가르쳐야 했다. 그러나 진영 안에는 절대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지도자들이 원하는 대로 기꺼이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조지 에이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87~288쪽)

- 이스라엘 진영 대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구주를 따르고자 노력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경험 #2

교리와 성약 103편 20절과 제일회장단의 히버 시 김볼 (1801~1868)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는다.



우리의 적들이 계속 폭력을 가하겠다고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행군을 계속해 나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그분의 천사들이 우리 앞에 갔으며, 작은 우리 부대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천사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동반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히버 시 김볼,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89쪽)

- 여러분이 이스라엘 진영의 일원이었다면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주님께서는 오늘날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경험 #3

이스라엘 진영이 잭슨군에 당도하기까지 하루 거리밖에 남지 않았을 때, 무기를 지닌 남자 다섯 명이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진영을 공격하러 오고 있다고 으스스했다. 진영의 대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토론하는 동안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저 조용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십시오.”

20분 후, 진영에 폭풍우가 쏟아졌다. 이 폭풍으로 인해 인근 강의 수위가 크게 오르면서 적들은 강을 건너와 공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스라엘 진영의 많은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로 피신했다. 잠시 후, 비에 흠뻑 젖은 조셉 스미스가 교회에 들어와 “이 폭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시니다!”라고 외쳤다.

폭풍이 몰아친 다음 날 아침, 진영 대원들은 천막과 물품들이 흠뻑 젖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지만, 공격해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도들: 후기의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 제1권, 진리의 표준, 1815~1846』 [2018], 203~204쪽에서 인용 및 요약함)

- 여러분이 이스라엘 진영에 속해 있었다면 이 경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는가?
- 이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삶의 힘든 시기에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